

# 韓國大學博物館의 現況과 問題點

安 承 周\*

## 目 次

서 언	V. 박물관의 설치와 공개
I. 박물관의 운영요원	VI. 박물관 사업
II. 박물관의 건물과 시설	VII. 박물관에 대한 인식도
III. 박물관의 예산과 재정	결론 및 제언
IV. 박물관의 자료소장 현황과 활용	

## 서 언

한국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과 팽창은 대학내의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검증시켜 왔다. 특히 대학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민족적 知性의 產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그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그 운영의 활성화를 當爲化하고 있다.

이같은 박물관의 필요성은 문교당국으로 하여금 대학내 박물관의 설치를 권장 혹은 필수화하도록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67년에 발표된 교육기준령은 종합대학의 박물관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1970년 개정된 대학설치령은 「학생 1,000명 미만까지는 450m<sup>2</sup>이상, 2,000명 이상은 600m<sup>2</sup> 이상으로 할 것」 등으로 그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같은 당국의 지침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요청에 대한 기대의 반영이며 동시에 대학박물관의 수적 증가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961년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창립 당시 18個校에 불과했던 會員校가 이제 50餘 個校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간의 수적 발전상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이 數的으로 증가된 사실 이외에도 內的으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박물관이 아직 연륜이 日淺한 初創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때문에 그 활동여건이나 운영의 면 등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을 또한 안고 있는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박물관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고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대학박물관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여기에서 노출되어지는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써 向後 대학박물관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一助가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본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설문지를 작성, 회원교에 서면으로 이를 의뢰하여 협조를 받았다.

\* 公州師大博物館長

설문을 의뢰한 48個 박물관중 내용에 대한 응신을 받은 것은 42個 박물관으로서 87.5%의 설문회수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문에 의해 파악되어진 현황 및 통계치가 본고 작성에 주자료로서 사용될 것이다.

협조해 주신 각 대학의 관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고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한, 혹은 소홀히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I. 박물관의 운영 要員

박물관을 구성하고 있는 人的 要素는 박물관의 운영 및 그 사업의 성패와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박물관은 최고의 운영 책임자로서 1명의 관장이 있고, 그 아래 연구직 혹은 사무직 要員이 있으며 그밖에 운영위원회 등의 자문기구가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관장과 전임직원의 현황이 될 것 같다.

### 가. 館 長

#### ① 관장의 신분·임기·연령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은 同大學의 교수로서 박물관장을 補任하고 있고 (1個大만은 사무직의 관장) 그 임기는 대체로 2년이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박물관이란 기구의 전문적 성격상 관장직을 계속적으로 重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현재 각 대학박물관 관장의 연령은 거의 40~50대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연령은 51세 가량이다. 파악된 40人中 40代가 17人(42.5%), 50代가 16人(40.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② 관장의 전공분야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은 고고미술사적 성격의 박물관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민속학적 내용이 어느정도 加減되어 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관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어떠한 학문의 전공자가 관장에 補任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관장의 전공학문과 보직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은 통계가 산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41人中 약 32%에 해당하는 14인이 고고미술 전공자이고, 44%가 역사학, 그리고 국어국문학이 약 20%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각 대학은 관장의 임명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전공자,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주변학문 분야에서 이를 선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성격상 보직이 그 전공학문과 합치되는 것

<표 1> 관장의 보직과 전공과의 관계 (%)

고 고 학	미 술 사	한 국 사	동 서 양 사	국 어 국 문 학	기 타	계
8(19.5)	5(12.2)	13(31.7)	5(12.2)	8(19.5)	3(7.3)	41(100)

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고미술 전공의 관장이 32%라는 것은 대단히 미흡한 비중이라 생각되어지며 가능한 여건 내에서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③ 관장의 適當 강의 時數

박물관장은 교수로서, 관장은 보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所定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관장의 강의 時數는 박물관의 규모 혹은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반드시 같을 수가 없다. 실제로 있어서도 각 대학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고 15시간을 담당하는 대학도 있다 평균 담당 時數는 8시간으로 관장이 40~50代 이상의 원로교수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時數임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같이 많은 강의부담은 앞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나. 專任 職員

박물관의 기본업무는 전임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박물관의 현황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전임요원의 현황이 그 단적인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각 대학박물관의 인적구성 내용에 대한 파악은 학예직, 사무직, 기타 보조직 등으로 구분, 집계하였다. 그 결과 42個 박물관중 전임의 학예직과 사무직 요원을 모두 갖춘 것은 45%정도이고 사무직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47.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표 2> 전임직원 보유 상태 (%)

학예직+사무직	사 무 직 만	보조원 혹은 전력없음	계
19(45.2)	20(47.6)	3(7.2)	42(100)

전문적 연구와 조사 및 자료정리의 임무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박물관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학예직 요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사실이라 생각된다. 설문에 응답한 42個 박물관중 절반이 넘는 23個 박물관이 학예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니와 설문에 응하지 않은 박물관의 경우도 거의 학예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점을 감안하면 실제 학예직 보유 박물관은 절반에 훨씬 미달한다는 결론이며 더우기 비전공 관장의 수적 비중이 크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이의 심각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 전임요원의 보유 현황을 다시 국립과 사립의 경우로 나누어 파악해 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15個 대학중 4個大만이 학예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립보다 국공립 대학에 있어서 학예직 보유 현황이 특히 저조함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에 의하여 전임요원의 충족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한 결과

- ① 충분하다. 1(2.4%)
- ② 전임연구원이 부족하다. 14(33.3%)
- ③ 직원이 부족하다. 2(4.8%)
- ④ 연구원 직원이 모두 부족하다. 25(59.5)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90% 이상이 연구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요원의 부족원인에 대해서는

- ① 전임 T.O. 배정이 없기 때문 30(71.4%)
- ② 예산 배정이 없기 때문 5(11.9%)
- ③ 적당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 7(16.7%)

등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이 전임의 T.O.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한가지 결론은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절반 이상이 전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그 대부분의 이유는 전임 T.O.의 배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는 박물관 자체의 노력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대학당국의 특별한 배려를 요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박물관의 운영과 제반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研究員의 확보를 박물관 설치의 필수요건으로 제도화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규모가 작은 박물관이나 신설의 박물관일 경우 흔히 전임요원이 缺員된 상태이거나 이것은 대학박물관의 형식화를 초래하여 본래의 설치의도를 살리지 못할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요원 확보의 필수화야말로 앞으로 대학박물관의 활성화여부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한편 연구원 등 박물관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보다 橫的인 유대와 교류관계가 활발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교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특별연수를 갖는등 여러면에서 유대 협력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II. 박물관의 건물과 시설

박물관의 기본적 기능이 각종 유물이나 미술품 등을 정리 보관하고 이를 전시, 교육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건물과 전시될 작업실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설문에 의하여 현재 박물관 건물의 현황과 상태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박물관 건물이 어떻게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 ①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키 위해 설계, 건설되었다. 9(21.4%)
- ② 원래는 일반 용도로 설계 건설된 것이었으나 처음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15(35.7%)
- ③ 강의실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일부 개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18(42.9%)

등으로 처음부터 박물관 용도로 설계 건축된 건물은 전체의 20%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 건물은 여러가지 면에서 독특한 구조와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효용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물관의 장소나 위치에 따른 환경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 ①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된다. 9(21.4%)

- ②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16(38.1%)
- ③ 박물관으로서 부적절한 위치이다. 14(33.3%)
- ④ 극히 부적절한 위치이다. 3(7.2%)

등으로 응답하여 전체의 40%정도가 현재의 위치, 환경이 박물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는

- ① 충분하다. 3(7.2%)
- ② 그런대로 적절하다. 8(19.0%)
- ③ 부족을 느끼고 있다. 15(35.7%)
- ④ 심하게 부족하다. 16(38.1%)

등으로, 응답한 박물관의 74%가 건물의 면적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진열실, 작업실 혹은 자료정리실, 문헌자료실, 연구실, 사무실 등의 순으로 답하고 있어서 기본적 시설 자체가 미흡함을 말해준다. 참고삼아 작업실(혹은 자료정리실)의 보유 유無를 파악해 본 결과 40個校中 22個校만이 유물정리실 혹은 작업실을 보유하고 있다. 응답하지 않은 잔여 박물관을 포함하여 생각할 때 작업실(자료정리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박물관이 절반을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비 수준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않는가 생각된다. 유물창고의 경우도 40個校中 37.5%에 해당하는 15個 박물관이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박물관의 안전시설 상태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이를 질문한 결과

- ① 잘 되어 있다. 5(11.9%)
- ② 그런데로 큰 문제는 없다. 23(54.7%)
- ③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12(28.6%)
- ④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2(4.8%)

등으로 응답하여 응답교의 30% 이상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 유품 자체가 문화재로서 뿐만아니라 財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니와 이러한 유품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介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박물관이 안고 있는 이같은 건물과 장소와 설비면의 문제점은 그것이 본래부터 박물관으로서 설계 건축된 것이 아니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초부터 박물관으로 사용키 위해 설계 건축된 것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 현황조사에서 박물관으로서 독립건물을 보유한 대학은 42個大中 9個校 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應答校의 21.4%에 지나지 않는 비중이다. 상당수의 대학이 강의실을 변조한다든가 일반 용도의 사무실을 개축한다든가 하여 임시적으로 박물관을 개설한 것이 그간의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대학내에서의 박물관의 비중의 빈약성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어서 보다 심각한 속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여건 하에서 박물관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싶다.

### Ⅲ. 박물관의 예산과 재정

박물관의 운영과 조사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또한 중요한 요건이 되어진다.

현재 각 대학박물관의 예산 내역은 각 박물관의 규모와 활동등에 의하여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각 박물관의 예산 규모를 집계, 정리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각 대학박물관의 예산규모 (%)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3,000만 미만	3,000만 이상~ 5,000만 미만	5,000만 이상	계
9(25.7)	15(42.9)	5(14.3)	6(17.1)	35(100)

한편 이들 예산의 소요 내역을 보면 자료수집비(유물구입)의 비중이 가장 크다. 각 박물관의 예산에서 자료수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집계한 것이 <표 4>이다.

<표 4> 예산에서 자료수집비의 비중 (%)

40% 이하	41~60%	61~80%	81%이상	계
8(25.0)	8(25.0)	9(28.1)	7(21.9)	32個校 (100)

<표 4>에 의하면 자료수집비의 예산상의 비중은 대학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자료수집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료조사비(유적조사비)의 비중은 훨씬 작은 비중이다.

다음의 집계표가 그것을 말해준다.

<표 5> 자료조사비의 예산상 비중 (%)

5% 이하	6~10%	11~30%	30% 이상	계
8(25.0)	12(37.5)	8(25.0)	4(12.5)	32個校 (100)

<표 5>에 의하면 자료조사비의 비중은 전체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이 10% 이하임을 보여 주고 있고 조사비가 전혀 할당되어 있지 않은 박물관도 상당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 대학박물관이 자료구입에 치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보다 적극적인 연구조사활동에 소극적임을 말해 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 규모상 자료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대폭 상승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의 박물관 예산에 대한 자체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 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0(0%)
- ②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5(11.9%)
- ③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2(76.2%)

④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5(11.9%)

라고 답하여 응답교의 88%가 예산상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연구조사비와 자료구입비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대학박물관의 재정 충당 방식은 거의 대학 당국에서 책정된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거니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보조하는 박물관은 2個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볼때 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배려는 일차적으로 대학당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 대학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IV. 박물관 자료소장 현황과 활용

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규모가 어느정도인가를 현황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각 대학박물관에서 제공한 수량적 통계에 의하면 그 규모는 수백점으로부터 십만여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극히 크다. 박물관의 수량적 규모를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각 박물관소장품의 수량적 규모 (%)

1,000점 이하	1,001~3,000점	3,001~5,000점	5,001~10,000점	10,000점 이상	계
8(19.0)	12(28.6)	8(19.0)	8(18.0)	6(14.3)	42個校(99.9)

이에 의하면 1,000점 이하의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이 8個校, 1,001~3,000점이 12個校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10,000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한 박물관은 6個校임을 알 수 있다. 수량적 규모 차이가 극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소장 유물의 시대별 분포 혹은 품질별 분포 역시 박물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경향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참고로, 현황조사에 응신한 42개 박물관 소장 자료의 총량은 323,489점, 이를 42個校 평균으로 따지면 7,702점이란 계산이 도출되어진다.

소장 자료의 연도별 증가추세에 대한 說問에 대하여는

- 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1(50 %)
- ② 자료증가는 거의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 11(26.2%)
- ③ 자료의 증가율이 계속 감퇴되고 있다. 7(16.7%)
- ④ 자료의 추가는 거의 어려운 편이다. 3( 7.1%)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료 증가율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의 감퇴, 혹은 신자료의 추가가 어렵다는 박물관이 24%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주목해야 할 점인 것 같다.

한편 자료의 주된 확보 방법에 대하여 질의 결과

- ① 발굴조사 10(20.8%)

- ② 구 입 31(64.6%)
- ③ 기 부 6(12.5%)
- ④ 기 타 1(2.1%)

등으로 응답하여 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박물관의 자료구입은 散逸된 문 화재를 학술자료로서 확보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크게 긍정적인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그 비중 상 발굴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 자료확보의 점유비율이 보다 높아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수집된 자료가 실제 자료로서 어느정도 정리되어 있고 또 이용의 편의가 제공되어 있는가 질문한 결과

- ① 소장자료의 목록이 책으로 간행되어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4(9.5%)
- ② 주요 소장자료의 도록이 간행되어 있다. 9(21.4%)
- ③ 목록 혹은 도록은 간행되지 않고 유물 카드만 정리되어 있다. 29(69.1%)

등으로 나타나 목록 혹은 도록을 간행한 박물관은 3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수장되어 있는 각 박물관의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료목록 등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박물관의 학술적 기능 증대를 위해서는 이같은 작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소장자료의 이용도에 대하여는

- ① 학내외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용도가 매우 활발하다. 9(21.4%)
- ②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도는 보통이다. 17(40.5%)
- ③ 여건때문에 완전한 개방을 못하고 있고 이용도가 저조한 편이다. 11(26.2%)
- ④ 아직 관람 혹은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5(11.9%)

등으로 답하여 대체로 자료이용의 편의 제공에는 적극적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건의 不備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 V. 박물관의 설치와 공개

1961년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창립 당시 18個校에 불과했던 회원고는 이제 50餘個校에 이르고 있다. 각 박물관이 어느 정도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설치현황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설립연도별로 분류 집계한 것이 <표 7>이다.

<표 7> 대학박물관의 설립연도별 분포 (%)

1945년 이전	45~60년	61~70년	71년 이후	계
2(4.8)	5(11.9)	17(40.5)	18(42.8)	42(100%)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은 그 80% 이상이 60年代 이후의 설립임을 알 수 있거니와 조

사에 응하지 않은 박물관의 대부분이 신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박물관은 1960년대 이후 급증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1960년대는 민족주체성의 확립이라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동시에 대학이 이같은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교당국이 대학내 박물관의 설치를 권장 혹은 의무화한 것도 같은 때의 일이다. 이점을 고려할때 대학 박물관은 196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요구에 대응하여 급격히 증설 되었으며 여기에 문교당국의 제도적 조치가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대학에 대한 문화적 요구가 이미 달성된 것이 아니므로 박물관은 앞으로 더욱增設되어야 하며 동시에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丙實化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82년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수가 98個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재 박물관이 설치된 대학은 그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실정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향토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것을 감안할 때 종합대학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단과대학이라 하더라도 박물관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단과대학의 경우도 박물관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하다면 4년제 대학은 모두 박물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박물관의 개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당 개관일수를 조사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집계되었다.

이에 의하면 박물관의 여건상 공식적인 개관일이 없고 관람요망이 있을 경우 수시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는 박물관이 아직 20% 가량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설문 미응답교의 대부분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의 비중은 실제 훨씬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박물관 활동의 활성화와 그 역할기능의 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관일의 확대 실시는 그에 따르는 인적 물적 부담을 가져 오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 Ⅵ. 박물관의 사업

한국 대학박물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끊임없는 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어떠한 성과와 업적들을 남겼으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교육적 기능의 측면과 연구조사 사업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가. 교육적 사업

박물관이 담당하는 교육적 기능은 평상시의 일반 전시를 통하여 주로 담당되어지게 된다. 여건상 소장유물이 공개되고 있지 못한 몇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박물관의 이용실태를 대충 가늠해 보기 위하여 81년도의 박물관 관람인원을 學內, 他大學, 일반인 등으로 나누어 집계해 보았다. 그

결과 學內의 관람인원과 타대학 및 일반인의 관람인원이 거의 유사한 통계치를 보이고 있어 대학박물관이 단순히 학내 기관으로서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크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타대학 혹은 일반인의 관람인원 합계는 연간 10여만 이상이라는 상당한 통계치여서 박물관이 실제 담당하는 문화적인 역할의 비중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것 같다. 정확한 숫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36個 대학박물관의 81년 1년간 관람인원 集計는 277,507명이다. 이를 36個 박물관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약 7,709명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학박물관의 중요성을 실감케하는 것 같다.

한편 각 박물관은 수시로 특별전 혹은 기획전 등을 독자적으로 개최하여 학내의 인사들에게 교육적 내지 학술적 공헌을 해왔다. 근년에 각 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 전시회의 예를 다음에 摘記함으로써 참고로 삼고자 한다.

1) 建大: ① 唐宋代 書畫展示(76), ② 韓國現代 書畫展示(78), ③ 朝鮮名人 筆跡展示(79), ④ 가평군 이곡리 발굴유물전시(80)

2) 啓明大: ① 이조 가구장식 500년전(77), ② 대가야고분 특별전시(79), ③ 구한말 기록사진전(81), ④ 라틴아메리카 예술전(81)

3) 崇田大: ① 古新聞展(68), ② 李朝 民俗工藝展(68), ③ 1920년 이전 기독교관계 도시전시회(71), ④ 한글필사본 전시회(72), ⑤ 崇田 80년 사진전시회(77)

4) 延大: ① 한국토기전 Ⅰ(82), ② 한국자기전 Ⅱ(82)

5) 梨大: ① 木工小品特別展(77), ② 명기와 墓誌(78), ③ 木工家具特別展(79), ④ 조선시대의 그림(80), ⑤ 高麗陶磁特別展(81), ⑥ 소반특별전(82)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에 따라서는 특별전을 매년 개최하고 그에 따르는 目錄을 발간하는등 대외적 전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많은 대학에서 박물관도록을 홍보용 내지 자료로서 발간하고 있으며, 문화영화의 제작 혹은 슬라이드나 우편엽서 등을 기획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각 박물관마다 여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교육적 기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이 현실적 제반여건으로 말미암아 자칫 소홀히 되기 쉽다고 생각되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나. 학술적 사업

각 박물관은 여건의 한도 내에서 고고학적 조사작업을 비롯한 각종의 학술적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각 박물관이 주관하고 시행하였던 학술적 조사작업은 일일이 例擧하기 곤란할만큼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그 결과는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하고 때로는 발굴보고서로 출판되기도 하거니와 각 박물관이 출판한 발표보고서의 예를 다음에 摘記함으로써 참고로 삼고자 한다.

1) 建大: ① 가평군 이곡리 초기철기시대 유적 발굴보고서(80)

2) 경북대: ①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I · II (80, 81)

3) 啓明大: ① 고령 지산동 제45호분 발굴조사보고서(79), ② 고령 지산동 고분군(35-35호분) 발

굴조사보고서(81), ③ 고령 연조동 “전어정” 발굴조사보고서(81)

4) 東亞大: ① 東萊 福泉洞 第一號古墳 발굴조사보고 제 1책~6책, ② 昌寧桂城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77), ③ 東萊邑城 西將台 望月山頂建物址 發掘調查報告書

5) 釜山大: ① 부산 오륜대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72), ② 부산 화명동고분군(79), ③ 부산 금곡동 울리 패총(80), ④ 김해 수가리패총 I(81)

6) 梨 大: ① 安東造塔洞古墳發掘調查報告書, ② 安東中街邱洞古墳發掘調查報告書

7) 安東大: 西三洞壁畫古墳(81)

8) 嶺南大: ① 皇南洞古墳發掘調查報告書(75), ② 鳩岩洞第56號 古墳發掘調查報告書(78), ③ 安東文化圈 地表調查報告(82), ④ 安東水沒地區 古家 稼轉復元報告(82)

9) 全東大: ① 광주송암동주거지 발굴조사보고서, ② 광주시 충효동 지식묘 발굴조사보고서, ③ 동북댐 수물지구 발굴조사보고서

10) 全北大: ① 전주시 완주군지역 유물유적 지표조사, ② 남원 장수지역 유물유적 지표조사

11) 濟州大: 海村生活調查報告書(78)

12) 忠南大: ① 定林寺址發掘調查報告書, ② 海美邑城內 建物址 發掘調查報告書

13) 忠北大: ① 대청댐수물지구 유적조사보고서(79)

14) 淸州大: ① 충주댐 수물지역 유적유물 조사보고서(77), ② 미륵리사지 발굴조사보고서(78),

③ 미륵리사지 2차발굴조사보고서(79)

상기한 조사보고서 외에도 집계되지 않은 많은 보고서들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정기적인 발굴조사보고서 외에도 서울大의 “韓國考古學年報” 東國大의 “佛敎美術”과 같이 정기적 학술지 간행이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대학박물관은 그동안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학술적인 점에서 유물유적 조사발굴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규모있고 계획적인 학술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의 확보와 필요한 조사 경비 등의 충당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이 학내의 교육적 기능이나 학술적 사업 외에 지역문화의 창달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방대학 박물관의 경우는 그 여건상 이러한면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방의 각종 문화행사 참여, 지역문화의 소개와 홍보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한 각종 책자나 필름을 제작하는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결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Ⅷ. 박물관에 대한 인식도

박물관이 대학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박물관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박물관을 관람하고 이용하는 학생, 혹은 학내인사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행정을 집행하는 학교 당국이 박물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대학내 학생들의 인식도에 대한 파악은 별도의 세밀한 고찰을 필요로하는 것이지만 본고가의 정밀 파악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충 각 박물관 자체의 평가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대학내 학생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으로 질문한 결과

- 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8(19.0%)
-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12(28.5%)
- ③ 인식도가 약한 편이다. 21(50.0%)
- ④ 인식도가 극히 낮다. 1( 2.4%)

라고 하여 인식도가 약하다고 보는 대학 50%를 넘고 있다. 미응답교의 대부분도 인식도가 약하리라고 여겨지므로 전체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도가 고취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내에서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인식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활동 이외에 홍보·교육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개관일의 확대, 공개시 관람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그리고 특별 혹은 기획전시회, 박물관 교양강좌, 초청강좌 그리고 문화영화 상영 등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극히 중요하다.

대학당국이 박물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얼마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박물관 활동은 그 범위가 상당히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당국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 내지 배려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한 결과

- 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8(19.0%)
- ②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한도에서 배려되고 있다. 17(40.5%)
- ③ 좀더 적극적인 배려가 아쉽다. 72(40.5%)

등으로 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20%에 미달하는 숫자이며 적극적인 배려가 아쉽다는 응답이 40.5%를 점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① 전문요원의 확보, ② 충분한 재정의 확보 ③ 충분한 시설 확충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이같은 점은 박물관 운영상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 ① 전문요원의 확보 20(33.3%)
- ② 충분한 시설확보 15(25.0%)
- ③ 예산의 증액 17(28.3%)
- ④ 소장자료의 충분한 확보 8(13.3%)

등으로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문요원 확보라든가 시설·예산등의 문제는 사실상 박물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 대학 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박물관은 도서관과 더불어 학내의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2대 주요기관이다. 박물관에 대한 배려를 도서관에 비교하여 생각하면 그 소극성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대학박물관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박물관 자체의 활동 문제가 아니라 박물관의 존립 여건에 관계되는 박물관외적 문제에 대체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물관은 그 설립도 중요하지만 설립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반 여건이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박물관은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여건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한계내에서나마 각종 연구활동과 교육 홍보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박물관의 인식을 쇄신시키고 그 비중을 제고시키는 데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 결론 및 제언

한국 대학박물관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양적으로는 이제 전국에 50餘個에 이르는 박물관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각 대학이 자료의 보관, 전시라는 일상 업무 외에 학술적 조사작업에 경제적으로 참여하여 학계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박물관은 많은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할 허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 대학박물관의 제반 현황과 실태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의 추출 및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논의해온 여러 소재들을 종합 정리하여 한국 대학박물관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현재 각 박물관은 동 대학의 교수로 補任되는 2년 임기의 관장 1명이 박물관의 운영책임을 담당한다. 관장의 평균 연령은 51세, 주당 평균 강의 시수는 8시간으로 상당히 높다. 한편 관장의 전공분야는 고고학 혹은 미술사 전공자가 32%, 역사학 44% 국어국문학 20% 등으로 나타나 관장이라는 보직과 전공학문과의 관계는 親緣性은 있으나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2) 50% 이상의 박물관이 전임 학예적 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보다 국립대학의 경우가 보다 심각하여 15個大中 4個大만이 학예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박물관의 90% 이상의 전임 연구원의 부족 혹은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전임 T.O.의 배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박물관의 운영과 연구조사 업무등 實務의 주체가 되는 전임요원이 이같이 빈약하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박물관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도에 알맞는 규격의 건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박물관중 애초부터 박물관으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강의실 등 일반 용도로 설계된 것을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물관의 효과적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불편이 수반될 뿐

아니라 할당된 건물의 면적조차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박물관의 70% 이상이 건물면적의 협소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진열실, 작업실(자료정리실), 문헌자료실, 연구실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작업실(자료정리실)을 갖추지 못한 박물관이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설비 상태를 단적으로 짐작케하고 있다.

4) 박물관의 예산규모는 대학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40% 이상이 1,000만에서 3,000만원 미만에 분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박물관이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의 소요 내역은 자료(유물)의 구입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자료(유적)조사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박물관이 총예산의 30% 이하를 지출하고 있어 자료조사비의 비중이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5) 박물관 소장 유물의 수량적 규모는 대학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수백점에서 십여만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42個 박물관에 수장된 자료의 총량은 약 30여 만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자료증가율은 점진적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료의 주된 확보방법에 대해서는 「구입」이 압도적이며(64.6%), 발굴조사(20.8%), 기부(12.5%) 등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6) 대부분의 박물관이 일정한 공개일을 정하여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당수(20%이상)의 박물관이 아직 개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장자료의 목록이나 도록이 간행되어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박물관도 숫자적으로 아직은 적어 70%가 이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7) 대학박물관의 年間(81년의 경우) 관람인원은 36個 대학의 총계가 10여만 이상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학박물관이 가지는 문화교육적 비중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일반 전시 외에도 각 박물관의 그 여건에 따라 각종 특별전과 학술강연회등을 개최하여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발굴조사와 그 보고서 간행, 학술잡지의 간행등을 통하여 학계에 多大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본체도에 오르고 모든 박물관이 동일하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8) 대학내 학생들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도는 아직 약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많은 박물관들이 학교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문요원의 확보, 충분한 시설, 예산증액 등 박물관 사업 운영을 위한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본고를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尙後 바람직한 대학박물관의 준립을 위한 몇가지 提議를 덧붙이기로 한다.

1) 박물관장은 보직의 전문적 성격상 전문분야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더우기 전문 요원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부담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임연구원의 확보와 활용 여하가 앞으로의 대학박물관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의 학예적 확보를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박물관의 설치 요건에서 이들의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동시에 각 박물관 간의 횡적 유대관계와 전문요원에 대한 研修制度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박물관의 시설과 건물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박물관이 용도에 맞

계 설계된 독립된 건물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박물관의 학술적 사업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보다 提高시켜야 할 것이다. 박물관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도록, 자료목록의 출판, 혹은 슬라이드 제작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현재 4년제 대학중 박물관을 보유한 대학은 절반 정도이다. 민족문화의 보존적 측면과 이의 발달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모든 대학이 박물관을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당국의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전문위원의 T.O.문제, 예산과 건물 등 제반 문제가 대학당국의 이해와 협조없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이러한 문제는 박물관 운영의 기초적 전제 여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속히 개선되어 박물관 운영의 内實문제가 보다 진지하게 연구 토의될 날이 속히 오기를 빈다.